

꿈대신 대마키우다... 10대 마약범죄 다룬 '소년비행' 파격

**'지금 우리 학교는' 윤찬영과 'D.P' 원지안 활약 기대
새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비행' 전편 오는 25일 공개**

꿈 대신 대마를 키운 위태로운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0대들의 마약범죄를 소재로 삼아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시즌 드라마 '소년비행'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윤찬영과 'D.P' 원지안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김해수 주연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이어 목격한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윤찬영은 22일 소년비행 제작발표회에서 "대마라는 강력하고 쉽게 접하지 못할 소재를 놓고 '고등학생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가 포인트였다"며 "윤탁은 대나무처럼 우직하지만 속은 여리고 허당기가 있다. 여러 매력을 느껴 끌렸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학교는와 소년비행은 장르부터 다르다"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속 '형상'의 목적이 살아남는 것이라면 소년비행의 윤탁 목표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며 "가끔 마약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대입시키려고 했다. 주변에서 '우리가 모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극본을 보면서 현실성있게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소년비행은 부모에게 마약 운반 수단으로 이용 당하던 18세 소녀 '경다정'(원지안) 이야기다. 다정은 쫓기듯 내려간 시골에서 '공윤탁'(윤찬영)과 친구들을 만나 대마밭을 발견한다.

원지안은 첫 주연을 맡아 부담감이 클 터

다. "D.P와 관련된 부담보다 첫 주연작이라는 부담이 더 컸다. 촬영 전부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며 처음 극본을 받았을 때 다음 회가 궁금해서 시나리오를 쫓 읽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진 어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며 "그 시기의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소년비행은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는 만큼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용익 감독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이 인물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수위였다"며 "보여주기식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인물에 집중했다. 기획 단계부터 제작진과 많은 고민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찾으려고 했다. 실제로 집 안에서 대마를 키우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더 리얼하게 연출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비행' 전편을 오는 25일 오후 6시 공개



'7번방 예승이' 갈소원, 염정아 딸 변신



배우 갈소원이 JTBC 새 토일드라마 '클리닝업'에서

'클리닝업'...다음달 1일 방송

업에서 염정아와 호흡을 맞춘다. 2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갈소원은 '클리닝업'에서 용미(염정아 분)의 첫째 딸 진연아로 분한다. 중학교 밴드부 보컬로 활동하는 진연아는 예민해 보여도 속 깊은 딸이다.

올 상반기 첫 방송되는 '클리닝업'은 주시전장에 휘말린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한편 갈소원은 지난해 티빙 오리지널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에서 열연했다. 오는 4월 1일 첫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내일'에서는 김희선 아역으로 활약한다.

갈소원은 지난 2013년 영화 '7번방의 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4년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여자신인배우상, 2015년 MBC 연기대상 아역상을 수상했다.



투바투, 美 빌보드 '송브레이커' 차트 진입

차트 18위 차지...K-팝 남성 아티스트 최초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빌보드 '송 브레이커(Song Breaker)' 차트에 진입했다.

23일 빌보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12일자 '송 브레이커' 차트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18위를 차지했다.

틱톡과 유튜브를 포함, 소셜 플랫폼에서 음악이 포함된 콘텐츠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주간 순위를 매기는 '송 브레이커' 차트에 K-팝 남성 아티스트가 이름을 올리기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현실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진솔한 가사와 트렌디한 멜로디로 노래해 '2세대를 대변하는 팀'으로 통한다.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TikTok) 등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과 태현이 피쳐링으로 참여한 샐렘 일리스(Salem Ilese)의 신곡 'PS5'의 댄스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틱톡에서 연준과 태현의 'PS5 챌린지'에 삽입된 음원 'PS5 오어 미 투모로우바이투게더(PS5 OR ME - TOMORROW X TOGETHER)'를 사용한 콘텐츠 수가 3일 만에 약 1만5000건을 돌파했다. 팬들은 이 챌린지에 사용된 댄스를 창작한 연준을 크레디트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1600만 명(3월 22일 기준)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K-팝 남성 그룹 중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6일 메타버스 팬 이벤트 '플레이 바이 투게더'를 연다.

K팝그룹, 전 세계 팬과 실시간 소통...콘진원 실감공연 성료

유튜브·트위터 생중계...전 세계 83만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 Kocca 뮤직스튜디오가 선보인 여섯 번째 기획 공연 '온더케이 : 라이브 스테이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일 콘진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끝난 '온더케이 : 라이브 스테이지(ON THE K : LIVE STAGE)'는 유튜브와 트위터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83만 뷰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뮤지션과 팬의 만남 기회 줄어든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시간 소통'을 주제로 기획됐다. 여러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모아 볼 수 있는 멀티캐스팅,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뮤지션과 팬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무대를 구현했다.

엔하이픈(ENHYPEN)의 공연 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연을 보기위해 접속한 팬들의 응원하는 얼굴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한 화면에 모여져 실시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이즈(THE BOYZ)는 공연 무대의 배경으로 팬 월(Fan Wall)을 사용해 팬과 함께 만드는 무대를 선보였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도 팬 월을 통해 뮤지션과 팬들과 함께 안무를 소화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공연 무대 뿐 아니라 토크쇼와 이벤트 등 프로그램 전반에 실시간 소통을 위한 기술들이 쓰여 비대면임에도 뮤지션과 팬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특히 엔하이픈 팬덤 엔진(ENGINE)과 함께 '엔하이픈과 봄소풍을 간다면, 엔진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이라는 주제로 나눈 토크쇼는 팬과 뮤지션 사이에 거리감이 전혀 없는 소통을 이끌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뉴스

가수 나훈아, 가황의 귀환... '버추얼 가요톱텐' 출연 확정

오는 27일 KBS WORLD TV 채널 통해 114개국 방영

'가황'(歌皇) 나훈아가 KBS WORLD '버추얼 가요톱텐'으로 돌아온다.

23일 KBS에 따르면, 나훈아는 25년 만에 부활한 '버추얼 가요톱텐'에 출연한다. '버추얼 가요톱텐'은 양자물리학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만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한다는 자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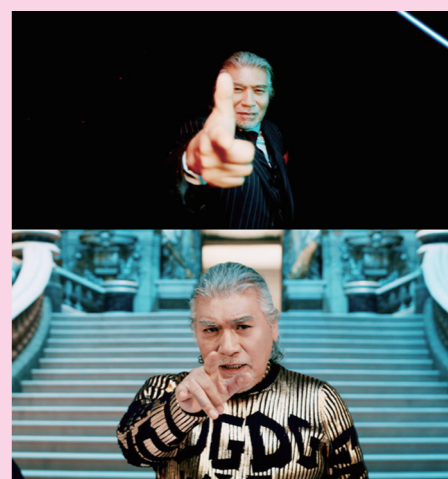
윤고운 PD는 "나훈아가 절대 포스(Absolute Force)를 가진 단 하나의 존재인 '더 원(The One)'으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KBS 2TV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전국에 '데스형' 열풍을 일으킨 그는 '버추얼 가요톱텐'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EDM 장르 신곡 '체인지'를 선보인다. 대표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 마마무 솔라, 브레이브 걸스, 크래비티, 체리블랫, 위클리, 빌리, 미래소년, 블리처스, 드리핀, 다크비도 출연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제작진은 "나훈아 선생님은 모든 후배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최고의 롤모델이다. 같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후배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거라 믿는다"며 "한국의 K팝 산업이 자본으로 육성된 인스턴트 상품이 아니라, 한국만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싶다"고 전했다.

'버추얼 가요톱텐'은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KBS WORLD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된다.

27일에는 KBS WORLD TV 채널을 통해 114개국에 방영된다.



스트리밍으로 공개된다. 27일에는 KBS WORLD TV 채널을 통해 114개국에 방영된다.

레드벨벳, 오는 26일 뮤직뱅크 '필 마이 리듬' 컴백 무대



그들 레드벨벳(Red Velvet)이 새 미니앨범

으로 가요계에 컴백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25일 KBS2TV '뮤직뱅크'에서 새 미니앨범 타이틀 곡 '필 마이 리듬(Feel My Rhythm)' 무대를 펼친다. 또 수록곡 '인 마이 드림스(In My Dreams)'까지 총 2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타이틀 곡 '필 마이 리듬'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팝 댄스 곡이다. 수록곡 '인 마이 드림스'는 사랑하는 상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느린 템포의 R&B

발라드 곡이다.

21일 발매된 레드벨벳 새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 필 마이 리듬(The ReVe Festival 2022 - Feel My Rhythm)'은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에 진입했다. 또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35개 지역 1위, 중국 QQ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했다.

한편, 레드벨벳은 26일 MBC '쇼! 음악중심', 27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필 마이 리듬' 무대를 꾸민다.